

삼성 패밀리허브, 인간공학디자인 ‘그랑프리’

소비자 중심 설계·음성인식 높이 평가

삼성전자는 15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가전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18년 인간공학디자인상’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랑프리는 부문에 상관없이 전 제품을 통틀어 인간공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에 주어지는 타이틀이다.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사용 용이성 ▲효율성 ▲기능성 ▲감성품질 ▲안정성 ▲시장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선정된다.

대한인간공학회는 삼성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인간공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인체 치수를 감안해 접근성 높은 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UX 디자이너들이 인간공학 디자인상 그랑프리를 수상한 ‘T9000 패밀리허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을 높이 평가했다. 스크린 위치를 적정 높이로 배치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쉬운 접근 화

면’ 기능과 주요 버튼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사이드 내비게이션’ 기능, 시각장애인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화면 색상 반전’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화자 구분(Voice ID)’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일정·메모·뉴스·날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감성품질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 빅스비와 내부 카메라를 적용해 음성만으로 식재료 간편 등록, 유통기한 자동 입력, 식재료 구매 등이 가능한 푸드 매니지먼트 기능은 제품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 2018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CES 2018’에서 가전 부문 ‘최고 혁신상’과 스마트홈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농아인 야구 캠페인 50만명 돌파

LG유플러스는 농아인 야구 활성화 위한 ‘U+프로야구’ 애플리케이션(앱) 기부 캠페인 참가자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U+프로야구를 통해 고객이 앱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후원금 100원이 적립돼 100만명 참여 달성 시 적립된 1억원을 대한농아인야구협회에 기부하는 고객 참여형 캠페인을 열고 있다. 기부금은 2019 세계농아인야구대회 운영비와 국가대표팀 훈련비, 전국 15개 농아인 야구팀 장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U+프로야구 앱의 농아인 야구 기부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야구할 때 가장 행복한 농아인 야구선수 이윤희 씨와 동료들의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된 ‘보이나요? 당신의 열정을 향한 세상의 응원이’ 영상은 지난 1일 공개 이후 현재 조회수 1000만에 육박, 단기간에 50만명이라는 기부 캠페인 참가자를 모았다. /김나인 기자 silkni@



‘보이나요? 당신의 열정을 향한 세상의 응원이’ 영상 중 농아인 야구선수 이윤희 씨와 그의 동료들에게 허구연 해설위원이 재능기부로 선수들을 위한 특별 코칭을 제공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복지재단 착한 교통사고로 2차 사고 막은 시민에 ‘LG의인상’

LG복지재단은 지난 12일 교통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운 후 운전자를 구한 한영탁 씨(사진)에게 ‘LG의인상’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암 나들목 인근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비틀거리며 계속 전진하는 것을 목격했다.

사고 차량 옆을 지나던 한 씨는 운전자가 조수석 쪽으로 기댄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



를 밖으로 무사히 구해냈다.

고, 대형사고의 위험을 우려해 지체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 차량을 막아 멈춰 세웠다.

이어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 잠겨있던 창문을 망치로 깨 후 시동을 끄고 운전자를 밖으로 무사히 구해냈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충돌로 인해 자칫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을 막아선 한 씨의 용감한 선행을 우리 사회가 함께 격려하자는 의미에서 수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LG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보답한다”는 구분무 LG 회장의 뜻을 반영해 ‘LG의인상’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총 72명을 선정했다. /정은미 기자

보령제약 충남대 약학대에 장학금 전달

보령제약은 15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충남대 약학대에 약 1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지역 우수인력의 육성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산학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의 우수한 학생 2명을 학술교류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장학생에게 인적성 검사를 통한 진로상담과 멘토링, 조직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 최태홍 사장,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정해광 학장, 김삼겸 부학장, 윤휘열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5월 16일 (음 4월 2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명칭하게 지내는 하루가 된다. 60년생 의욕이 없어 만사가 귀찮다. 72년생 상대의 보 달리는 요구있으니 곤란을 당한다. 84년생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면 언젠가는 이뤄질 수 있다.
- 소** 49년생 건강을 위하여 오늘 하루는 다 내려놓고 휴식하라. 61년생 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이 불화가 있다. 73년생 생각이 많아지니 머리가 복잡해진다. 85년생 동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겠다.
- 호랑이** 50년생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는 하루다. 62년생 조금 하지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74년생 힘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86년생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 토끼** 51년생 선임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63년생 과거 덕을 베풀고 과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75년생 쌓였던 피로를 잊는 즐거운 일이다. 87년생 첫눈에 반하게 되는 상대를 만난다.
- 말** 52년생 도움을 준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 64년생 지인과 즐거운 술자리가 마련된다. 76년생 뒷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88년생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 원숭이** 53년생 오늘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 포기 하지 마라. 77년생 열심히 일하는 밑에 사람을 칭찬해 주어야. 89년생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고 했다.
- 말** 54년생 어려울수록 아랫사람을 많이 격려해 줘라. 66년생 재성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금전 문제가 해결되는 하루다. 78년생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이 관건이다. 90년생 말 많은 일에 이득 될 것이 없다.
- 양** 55년생 과거에 심어놓은 친절에 덕을 볼 때가 되었다. 67년생 뒤통수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본다 하였고 하니 인연선발을 잘 하라. 79년생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91년생 외화내빈한 상대를 믿지 마라.
- 원숭이** 56년생 성공을 위해 자신을 알라. 68년생 무심코 상대를 모욕하지 마라. 80년생 소신껏 자신의 의지대로 하라. 92년생 역풍에 연이 높이 오르는 하루.
- 닭** 57년생 속빈강정처럼 허세를 부리면 금방 탈이 난다. 69년생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것을 명심 하고 일을 추진 하라. 81년생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여라. 93년생 약속은 실천이 따른다.
- 개** 58년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손실이 없다. 70년생 서두르면 실패의 원인이 된다. 82년생 계획대로 단계 밟아가며 일하라. 94년생 어려움에 대해 극복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다.
- 돼지** 59년생 모든일은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손실이 없다. 71년생 남의 언쟁에 참견하지 않으면 구설수가 없다. 83년생 공연하 책임져야 할 일을 만들게 된다. 95년생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도록 하라.

김상회의四季

풍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 종류의 선입견과 편견이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이나 땅은 세모나 뾰족한 형태는 피해야 하며, 따라서 적당한 비율의 장방형이나 직사각형이어야 한다든가 측간이나 부엌은 서북향이어야 한다던가하는 생각들 말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양택풍수가 된다. 땅자의 묘를 쓸 때는 음택풍수라 한다. 좌청룡 우백호의 자리를 명당으로 치는 것도 그 좋은 예이다. 풍수의 일반이론은 어떤 신묘한 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식적인 요건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보더라도 풍수무전미(風水無全美)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명당은 없다는데 동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흠결 없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천하의 명당자리를 찾게 된다면 당연히 한 나라의 왕이 탄생할 터라던가, 자자손손 흥성할거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면 알법한 어느 재계의 수장은 평소 풍수지리설을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을 정할 때 자신의 흥성을 이룬다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기운이 모여 있다는 터를 골라 주택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수지리설에 있어 금계포란형의 터는 자손의 번창은 물론 부와 귀를 함께 이루는 곳이다. 말 그대로 부귀겸전(富貴兼全)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회장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송사로 망신살이 뵈던 적이 많았었다. 그럴 때마다 일부 호사자들은 그 재계 인사의 일부러 고른 집터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탓이라 했다. 금계포란형이라 할지라도 그 기운이 응집된 와혈(窩穴)을 잘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탓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그릇된 견해다. 터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 지점 자체만 좋을 수가 없다. 땅이라는 것은 단지 토의 기운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기운이 펼쳐지는 영역은 생각보다 반경이 좁을 수도 있다. 칼로 두부모 자르듯 여기만 좋고 저기는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상주사과가 유명한 것은 상주라 불리는 지역의 대체적인 토질과 수량이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금계포란형이라 불리는 지역은 훌륭한 곳이지만 넓은 지역을 포괄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땅의 전체적 기운이 좋으니 그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경계망동하지 않았을 때 좋은 기운과 운이 차질 없이 발현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3		6			8	5	
		1			7			
8		5	7				3	
1		3	9				6	
		3		9				
7	9		3			6	2	
		8	4					
		2	6					

	1		3	4				2
		3			2	5		
6	7						4	8
				5			6	
9		3		1				5
	5		8					
	6						3	7
		8	7			1		
4			9					8

스도쿠 정답

6	8	9	2	3	4	5	1	7
2	5	1	7	6	8	9	3	4
3	9	8	5	1	7	6	2	4
8	2	6	2	1	9	5	7	3
9	7	5	6	8	2	1	3	4
1	3	2	4	7	5	6	9	8
6	2	1	5	7	1	8	9	3
5	8	7	1	9	6	2	4	3
1	4	9	8	2	3	5	7	6
9	8	2	5	6	1	2	4	7
7	5	1	4	9	2	8	6	3
2	4	6	8	2	7	5	9	1
4	6	7	9	8	3	1	5	2
5	6	9	8	2	1	3	4	7
3	2	1	9	8	7	5	6	4
1	9	8	2	5	6	7	3	4
8	7	4	6	1	5	2	3	9
6	1	5	2	1	9	4	7	8
2	4	9	7	8	6	1	5	3

문제 제공= **보너스**